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현황

강인한 차베스 신정권

1999년 2월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 대통령은 부패정치 척결을 선언하는 등, 「정치개혁의 시나리오」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한 결과로 생긴 커다란 문제가 있다. 80년대 후반 저유가 시기에는 석유수입 감소와 대외누적채무 발생에 따른 긴축재정, 수입 억제 등으로 경기는 침체하고 실업률이 상승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범죄도 증가했다.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은 부의 집중을 견제하고 소득분배를 꾀하는 등의 구조적 개혁 단행과 빈곤자에게 우선적인 주택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빈곤층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우호관계,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2000년 1월 1일에는 안데스공동체와 MERCOSUR(남미남부공동시장)간에 2년 전에 체결된 「자유무역권구상」을 시작했다. MERCOSUR의 지도자를 겨냥하는 차베스 대통령이 경쟁력이 없는 국내농업의 강화를 피하면서 FTAA(미주자유무역권)에 대하여 남미관계를 어떻게 전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유의존도 심화와 석유산업 민영화

베네수엘라 경제는 극도로 석유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를 포함한 광업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를 차지하여 원유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경제구조이다.

1996년 봄 경제개혁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쳐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채무의 부담이 경감되어, 97년 실제 GDP 성장률은 5.1%에 달했다. 그러나 98년에는 원유가격 하락과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어 GDP 성장률도 minus 성장에 머물렀다.

1998년은 석유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주력산업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국제가격 하락, 세출삭감, 금리인상까지 겹쳐 경제는 극히 악화되었다. 석유수출액이 92년 180억달러에서 98년에는 120억달러로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도 97년 39억달러 흑자에서 98년에는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직접투자도 저조하여 98년 총합수지는 27억달러가 적자였다.

1999년도에는 유가회복으로 재정이 개선되지만, 98년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했다. 국내의 장기 불황에 의해 비석유부문, 특히 건설업, 제조업, 농업에서의 큰폭 하락이 예상되는데, 99년에도 minus 성장에 그쳐 5%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1999년 7월 중앙은행은 99년의 GDP 성장률 전망이 minus 9%로 89년의 minus 8.3% 이래 가장 낮았으며, 특히 OPEC에 의한 추가감산과 PDVSA의 사업계획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여 석유부문 성장률은 minus 12.1%라고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전망도 24%로 중남미에서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내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올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차베스대통령은 2000년의 정부예산을 현재의 석유생산량 272만b/d, 유가 15\$/B에 기준하였다고 발표했다. 원유가격에 관해서는 OPEC 시장감시위원회는 금년 4월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감산을 지속한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디니(Handini) PDVSA 총재는 기본방침은 감산지속이라고 하면서, 3월 총회에서는 증산으로 전환도 할 수 있다는 함축성 있는 발언도 하였다.

민영화의 경우 97년말에 민영화된 Orinoco철강이 99년 4월말 이후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98년에 계획되었던 알루미늄관련 기업인 베나롭사의 경우 주주의 권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부진한 상태이다. 99년도로 예정되었던 썬다, 엔그르크 등의 전력회사 민영화는 검토대상에도 들지 않은 상태이다.

재정면에서도 정부는 긴축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99년 중반까지의 원유가격하락에 의한 세입 감소와 공무원의 임금채무지불 등에 의해 99년의 재정수지도 98년에 이어 적자로 이어질 것이다. 대외채무는 300억달러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외국의 직접투자는 현시점에서 크게 기대는 할 수 없지만, 99년은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으로 외화보유고도 증가하고 있고, 금년은 유가회복으로 인해 대외채무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책의 대전환

신정권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구정권이 전개하여 온 긴축재정과 시장개방을 2대과제로 하는 신자유경제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구정권의 핵심이었던 PDVSA의 생산력증대계획과 개방정책은 제일 먼저 비난대상에 올랐다. 차베스 대통령 밑에 석유관계인사도 재구성되어 구정권 인맥이 물갈이되었다. 새로운 에너지부장관에 Rodrigues가 취임하였고, PDVSA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Guisti가 교체되고, 신총재에는 PDVSA의 팽창노선과 개방정책을 비판한 CITCO 부총재 Handini가 취임했다. 작년 초까지 계속된 유가하락은 PDVSA에 큰 타격을 주었다. 유가가 하락할

때 발족한 신정권은 석유증산으로 세입을 늘일 것인가, 감산을 통한 유가상승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두가지 방법중 후자를 선택했다. 정권발족시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은 「6월까지 OPEC 감산합의에 따라 생산쿼터를 준수한다」였다. 동시에 PDVSA 개혁은 「통제강화」를 기조로 진행시킨다고 표명했다. Rodrigues 에너지부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OPEC의 생산량쿼터 준수를 강조했다. 감산대상은 PDVSA의 단독광구 뿐만 아니라 개방광구에도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OPEC감산이 성공한 것은 사우디가 이란과 손을 잡았고, 이에 베네수엘라가 사우디와 멕시코를 동시에 끌어들이기 위한 3국동맹을 만드는 결정타를 날렸기 때문이다. 예전에 베네수엘라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베네수엘라는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UAE 중동 5개국에 이어 세계6위의 대산유국이다. 그 영향력은 OPEC를 움직일 정도로 절대적이다. 원유확인매장량은 98년말 726억배럴, 가채년수는 60년이다. 더욱이 Orinoco 강 유역에는 매장량이 2,700억배럴에 달하는 초중질원유인 Orinoco Tar가 부존되어 있어, 총 매장량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최대 수준이다. 98년 원유생산량은 333만b/d(전세계의 4.9%), 천연가스생산량은 299억 m³/년(전세계의 1.3%)이다. 원유와 석유제품의 80%는 수출되고, 수출국은 북미가 60%, 중남미가 30%이다.

98년 베네수엘라의 원유가격은 10\$/B 전후까지 하락했지만, 99년 원유가격은 98년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했다. 석유수출액은 300억달러 정도에 달한다. 98년 7월부터 베네수엘라의 OPEC 생산량쿼터는 284.5만b/d이고, 감산량은 52만b/d였다. 그 후 99년 3월 OPEC 총회에서 비OPEC 국가의 협조감산분도 포함시킨 총 210만b/d의 추가감산이 결정되었는데, 베네수엘라의 추가감산분은 4.4%(125,000b/d)로 정해졌다.

동정권은 앞으로도 감산지속을 표명하고 있지만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의회에서는 증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의향도 내비쳤다. 그리고, 원유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price band제를 제창한 것도 주목된다. ☺

〈Oil report, 2000. 2. 7〉